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운



미 증시, 국내 반도체주 폭락 여진, 마이크론 실적 대기심리 등으로 약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3일(화) 미국 증시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반도체주 폭락 여파에 따른 마이크론(-13.2%), 샌디스크(-13.7%) 등 미국 반도체주들도 동반 급락, 24일 마이크론 실적, 25일 미국 PCE 대기심리 등으로 나스닥 중심의 약세로 마감(다우 -0.1%, S&P500 -1.4%, 나스닥 -2.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9%).

현재 반도체주들은 AI 투자 지속 가능성, 메모리 가격 상승 전망 등 중기적인 성장 내러티브는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레벨 부담 압력에 직면한 모습. 실제로 전일 조정이 있기 전인 6월 22일 기준으로, 6월 1~22일 S&P500과 나스닥의 수익률은 -1.7%, -3.4%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9%를 기록했던 상황.

그 가운데 메모리 업체들로 구성된 DRAM ETF(+18.7%, 6월 1~22일)의 성과가 더 뛰어났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 이는 주 후반 마이크론 실적, 5월 PCE, 차주인 6월말 분기, 반기 글로벌 연기금 펀드들의 리밸런싱을 앞두고 반도체 주에 대한 차익실현 및 기계적인 비중 조절의 유인을 제공했음을 시사.

물론 23일 하루만에 반도체주가 10%대 폭락하다 보니, 이들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지만, 상기 언급했듯이, 반도체, 빅테크를 중심으로한 주요국 증시의 실적 모멘텀은 양호하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 더욱이 2 미국 마이크론 실적의 경우, 이번주 조정으로 인해 지난주보다 실질적인 시장 눈높이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상존. 따라서, 마이크론 실적 이후 단기 급랭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대응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이들 주식에 대한 쏠림 현상 심화 우려 속 차익실현 물량 출회로 하락 전환한 가운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투매성 매도 물량이 출회된 여파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폭락세로 마감(코스피 -9.99%, 코스닥 -7.9%)

금일에는 미국 증시에서의 반도체주 급락 선반영 인식 속 전일 폭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및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반등 출발하면서, 전일의 폭락분을 만회해 나갈 것으로 예상. 금일 새벽에 발표된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 불발 소식도 제한적일 전망. 지난주 연례 시장 접근성 점검에서 외환시장 자유화, 영문공시제도 등을 포함해 5개 항목에서 마이너스 평가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편입 불발 시나리오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형성됐기 때문.

전일 코스피는 6월 8일 이후 월간 2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9.99%대 폭락해버린 상황. 이는 96년 이후 코스피 역대 5위 폭락에 해당되지만, 그 폭락의 성격은 이전과는 달랐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 역대 1위(-12.1%)는 올해 미-이란 전쟁, 2위(-12.0%)는 01년 9.11테러, 역대 3위(-11.6%)는 00년 닷컴버블 붕괴, 역대 4위(-10.6%)는 08년 금융위기 등 외부 대형 충격이 폭락을 초래했음. 반면, 이번 폭락은 6월 FOMC 여진, 국내 정치권의 과세 불확실성 등이 지목되기도 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쏠림현상이 본질적인 원인이었다고 판단.

직전일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내어준 이후, 이들 간 시가총액 1위 주도권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들 주식으로의 수급 쓸림 현상이 장 초반 심화됐던 상황. 하지만 장 중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대규모 차익실현 -> 지수 하락 -> 추가적인 매도 물량 출현 -> 지수 추가 하락 -> 대부분 업종에 걸친 투매 출현 -> 지수 폭락 및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이어지는 수급상 부정적인 순환 고리가 형성됐던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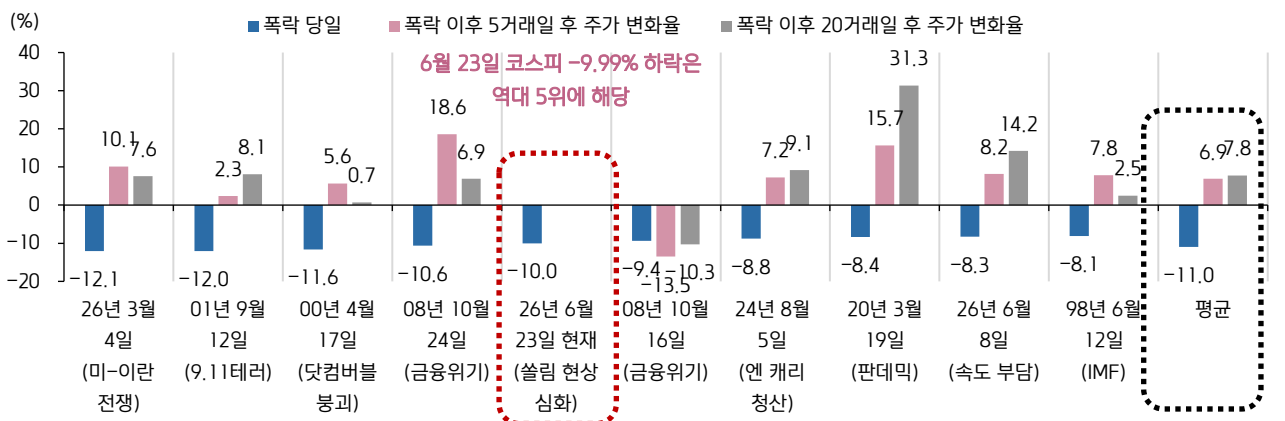
5~6월 내내 반도체 등 소수 업종 쓸림 현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기에,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쓸림 현상 해소 성격의 주가 되돌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했음. 그렇지만 일간 9%대 폭락은 반도체 등 주도주 보유자들에게는 비중 확대 기초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불안감, 반도체 비중이 낮은 투자자들에게는 연쇄적인 소외 현상 및 추가 폭락으로 인한 상실감을 초래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

이처럼 대응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담이지만, 현 시점에서 현금 비중 확대 등 보수적인 포지션을 늘리는 전략은 지양할 필요. 과거 폭락을 유발한 요인들은 상이했으나, 폭락 이후 낙폭과대 인식, 폭락 악재 소화 등으로 회복하는 패턴이 존재했기 때문. 실제로 역대 하락률 상위 10개 사례를 살펴보면, 폭락 이후 5거래일 뒤에는 +6.9%, 20거래일 뒤에는 +7.8%, 60거래일 뒤에는 +24.6%를 기록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정리하자면, 이번 폭락은 코스피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외부 충격이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움. 반도체 쓸림현상 극심화가 현물과 파생시장(단일 종목 레버리지 파급 효과)에서 만들어낸 수급 부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과거 경험상 수급 악재로 발생한 주가 조정의 기간은 길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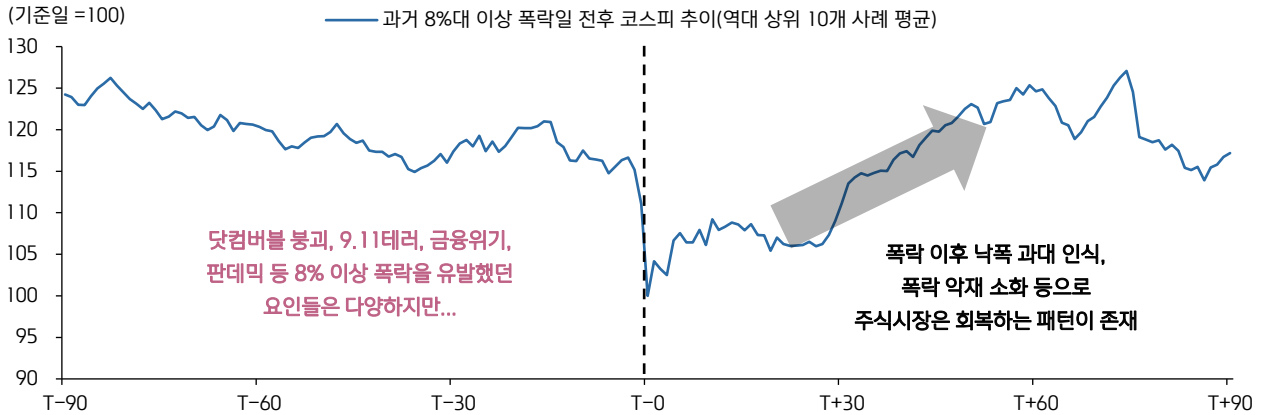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주도주인 반도체를 포함해 증권, 은행, 전력기기, 유통, 방산 등 기존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분할 매수 대응하는 전략의 실효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 또한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관점에서 코스피에 비해 미치지 못하지만, 전일 폭락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900pt선을 내어준 코스닥에 재진입하는 것도 단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연초 이후 코스피 +94.7% vs 코스닥 -3.7%).

1996년 이후 코스피의 역대 일간 하락률 상위 10개: 이번 6월 22일 코스피의 9.99% 폭락은 역대 5위에 해당. 그러나 역대 나머지 폭락기와 비교해보면, 하락의 성격에 차이가 존재. 현재는 반도체 쓸림현상 심화가 폭락의 기록제였다는 점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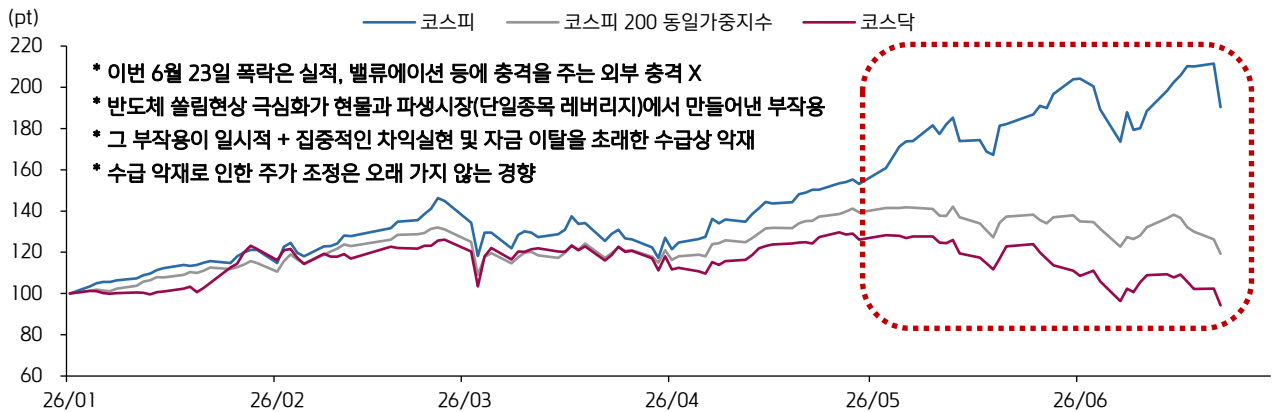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과거 8%대 이상 폭락일 전후 코스피의 평균 주가 흐름: 상기 10개 역대급 폭락 이후 코스피는 주가 회복 패턴이 출현. 폭락 유발 요인은 다양했지만, 폭락 이후에는 낙폭 과대 인식, 폭락 유발 악재 소화 등으로 하락 분을 만회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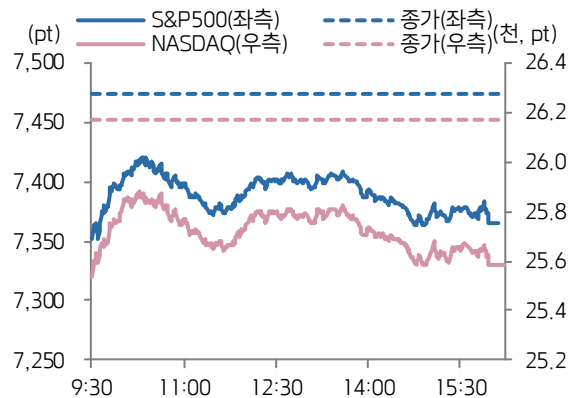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이후 코스피 vs 코스피 200 vs 코스닥 성과 비교: 6월 이후 두번째 서킷브레이커까지 초래했던 23일 코스피 9.99% 폭락은 실적, 밸류에이션에 충격을 주는 외부 충격이 아닌, 반도체 수출현상 극심화가 만들어낸 수급 부작용에 가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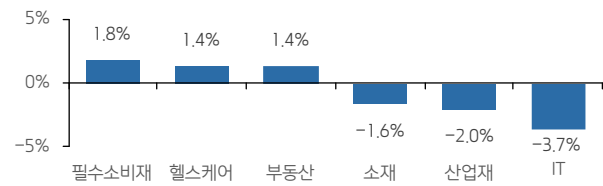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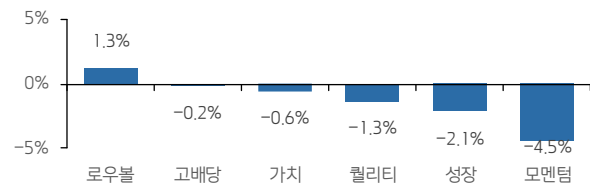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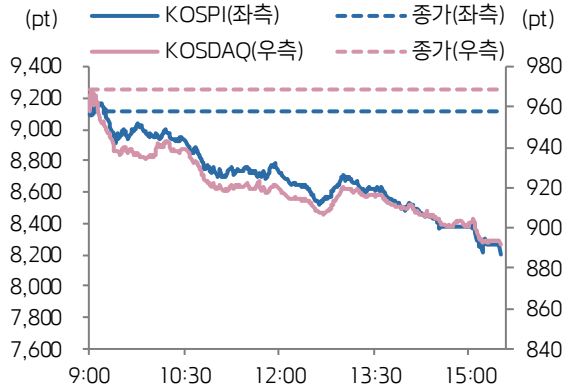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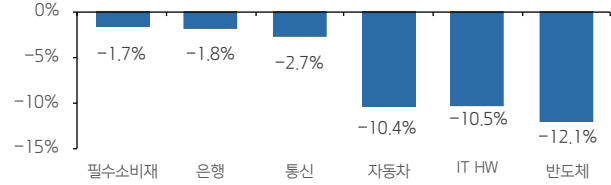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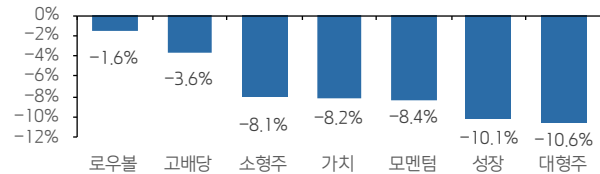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94.30	-0.91%	+8.25%	GM	78.95	-1.84%	-2.91%
마이크로소프트	373.94	+1.8%	-22.68%	일라이릴리	1,107.08	+0.45%	+3.01%
알파벳	346.13	-1.02%	+10.58%	월마트	119.42	+1.91%	+7.19%
메타	562.20	-0.29%	-14.83%	JP모건	334.14	+0.8%	+3.7%
아마존	234.11	+0.57%	+1.43%	엑손모빌	139.73	+0.91%	+16.11%
테슬라	381.61	-5.79%	-15.14%	셰브론	175.98	+0.53%	+15.46%
엔비디아	200.04	-4.13%	+7.26%	제너럴일렉트릭	119.42	+1.9%	+7.2%
브로드컴	380.15	-3.06%	+9.84%	캐터필러	984.24	-3.72%	+71.81%
AMD	519.85	-5.76%	+142.74%	보잉	216.71	-1.87%	-0.19%
마이크론	1,051.77	-13.18%	+268.51%	넥스트에라	86.43	+0.4%	+7.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8,203.84	-9.99%	+94.67%	USD/KRW	1,533.10	-0.38%	+6.5%
코스피200	1,321.70	-10.53%	+118.11%	달러 지수	101.36	+0.34%	+3.09%
코스닥	891.52	-7.94%	-3.67%	EUR/USD	1.14	-0.41%	-3.1%
코스닥150	1,598.66	-8.49%	+3.32%	USD/CNH	6.79	+0.25%	-2.59%
S&P500	7,365.46	-1.44%	+7.6%	USD/JPY	161.55	-0.01%	+3.09%
NASDAQ	25,587.04	-2.21%	+10.09%	채권시장			
다우	51,666.84	-0.09%	+7.5%	국고채 3년	3,765	-4bp	+81.4bp
VIX	19.49	+12.79%	+30.37%	국고채 10년	4,162	-3bp	+77.7bp
러셀2000	2,975.48	-0.96%	+19.89%	미국 국채 2년	4,198	-2.7bp	+72.5bp
필라. 반도체	13,482.51	-7.87%	+90.35%	미국 국채 10년	4,497	-1.2bp	+33bp
다우 운송	21,631.52	-0.75%	+24.63%	미국 국채 30년	4,945	-0.3bp	+10.2bp

상해종합	4,106.25	-1.37%	+3.46%	독일 국채 10년	2.919	-3.3bp	+6.4bp
항생 H	7,759.36	-1.96%	-12.95%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200.68	-1.16%	-10.58%	WTI	73.21	-0.88%	+28.35%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7.08	-1.05%	+26.67%
Eurostoxx50	6,230.55	-1.28%	+7.58%	금	4,149.40	-1.27%	-6.55%
MSCI 전세계 지수	1,106.52	-1.73%	+9.06%	은	62.07	-5.36%	-12.09%
MSCI DM 지수	4,821.78	-0.12%	+8.83%	구리	614.80	-3.42%	+8.2%
MSCI EM 지수	1,802.77	+0.93%	+28.37%	BDI	2,684.00	-1.4%	+42.99%
MSCI 한국 ETF	192.20	-12.25%	+97.7%	옥수수	437.25	-0.51%	-5.05%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97.00	-1.73%	+9.39%
비트코인	62,394.94	-3.07%	-28.81%	대두	1,141.75	+0.02%	+7.26%
이더리움	1,662.27	-4.08%	-44.18%	커피	275.95	+3.35%	-13.8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